

신 앙

차 례

1. 공인종교
2. 무속신앙
3. 마을신앙

산양리의 민간신앙으로는 포제가 있었는데 4·3을 기점으로 폐지되면서 지금은 제단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무속부락신앙인 축일당(도채비당)은 폐당된 지 20여 년이 지나 지금은 그 형태만 간신히 보존되고는 실태이고 그나마 할망당은 2007년에 축고를 지내 아직 그 형태가 남아 있다. 공인종교로는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 있다. 민간신앙, 공인종교 할 것 없이 산양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 활동은 미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1. 공인종교

산양리 종교시설은 교회가 유일하다. 본래 청수리에 속해 있다가 분리되어 나온 특성 때문에 산양리 사람들은 청수리, 저지리, 낙천리 등 인근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양리 내에 있는 공인종교와 산양리 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수리 지역의 공인종교를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기독교

(1) 경산교회

- ① 명칭: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산교회 (개신교)
- ② 위치: 산양리 폐교 앞
- ③ 연혁: 2001년 신장수씨가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산양리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다. (개척교회) 산양리 폐교 뒤의 관사에 살면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여 2002년도 12월 12일 현 위치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시작하였다.
- ④ 신도: 등록교인수가 40명 정도이며 출석 교인 수는 25명에서 30명 정도이다. 60세에서 65세 연령이 50%이상을 차지하며 그 나머지는 2~30대 이다. 대부분 수릉동, 월광동, 연화동과 조수2리 사람들이다.
- ⑤ 시설: 교회당이 하나 있고 그 뒤로 사채가 한 채 있다.
- ⑥ 시민들과의 연계: 매월 2~3회씩 이루어지는 보건소 진료 활동과 연계해서 미용 봉사활동을 하거나 매년 8월 둘째 주 화요일 목요일에 산양리와 조수2리에서 마을 음악회를 열고 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제주도의 썬당 문화를 몰랐어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아이들을 데려 와서 같이 축구도 하고 하면서 친해지고 처음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는 제가 가면 다들 좋아하죠 하지만 다들 ‘교회가자, 교회가자’ 하면서 본인들은 안 오시고 서로에게 가라고만 하죠.”

<교회 관계자 인터뷰>



(2) 청수교회

- ① 명칭: 기독교 대한 성결 청수교회 (개신교)
- ② 위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531
- ③ 연혁: 1974년도 4월 15일 청수리에 처음으로 성결교회 들어왔다. 2005년 9월 개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알려져 있다.
- ④ 대표자: 최창환 목사 (1998년도 부임)
- ⑤ 신도: 1998년 당시에는 30여 명이었고, 현재는 80여 명으로 가구 수로는 50호 정도이다. 이중 산양리 주민들은 10여 명 정도라고 한다.
- ⑥ 주민들과의 연계: 매일 오전에 마을버스 2시간 운행하고, 무료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만났을 때는 60대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40대 50대가 많아요. 30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아요. 제주시분들도 있고요. 동광으로 해서 오면은 40분 걸리기 때문에 제주시에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해서 젊은 분들은 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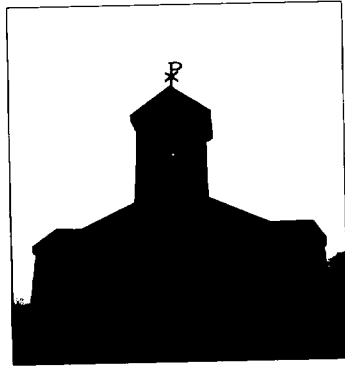
<교회 관계자 인터뷰>

2) 천주교

(1) 천주교 고산 성당

- ① 명칭: 천주교 제주 고산 성당 청수 공소
- ② 위치: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701

- ③ 연혁: 6·25를 전후하여 피난민들에게 구호품을 전해주는 것으로 포교를 시작하여 1958년도에 현재 위치에 성당을 세웠고 2000년도에 개축한 것이 지금의 성당이다.
- ④ 신도: 등록 교인 수는 240여 명이고 실제 출석 교인 수는 70여 명 정도이다. 전체 신도의 50% 이상이 60~70대 이다. 산양리는 현재 수룡동, 연화동, 월광동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연화동과 월광동은 고산성당 소속으로 되어 있고 수룡동만 청수 공소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산양리 마을분이 차지하는 신도 수는 청수 공소 성당의 전체 신도 수 대비 7~8%정도라고 한다.
- ⑤ 대표자: 이곳은 천주교 성당 본당이 아니고 (천주교 고산 성당)공소이기 때문에 성당에 상주하시는 신부님은 안계시고 고산 성당에 계신 김남원 안드레아 신부님이 일주일에 두 번 오셔서 예배를 지내신다고 한다.
- ⑥ 주민들과의 연계 활동: 마을 경로잔치를 주최하기도 하고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첼로 무료 교습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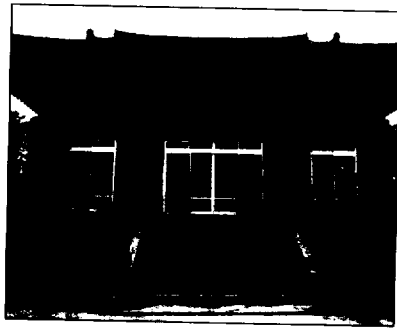
“신앙공동체,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등 신앙공동체가 지역 곳곳에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옛날에는 성당에서 했어요. 우리 성당에서 이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첼로로 어린이들의 소외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고 정서적으로 많은 문화 활동을 하고 항상 열린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죠. 가장 핵심적인 건데 종교가 신앙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선 만약 그때 당시 나 같은 사람이 ‘천주교를 세웁시다.’ 했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샤머니즘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지역 리더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더 신뢰를 받고 지역일의 봉사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샤머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 받지 않았겠죠.”

<성당 관계자 인터뷰>

3) 불교

(1) 영축사

- ① 명칭: 영축사 (법화종)
- ② 위치: 한경면 청수리 1223번지
- ③ 연혁: 1934년 가마오름에 부악사(釜岳寺)란 이름으로 절이 창건되었다. 그러나 4·3때 마을에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절이 폐쇄되어 불상만 모시고 제주시 한경면 판포에 있는 통천사로 잠시 옮겼다가 그 이듬해 낙천리에 절을 지어 15년 동안 그곳에 불상을 모셔두고 포교 활동을 하였다. 그 후 1962년도에 지금의 자리에 자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영축사란 이름의 절을 세웠으며 그 이듬해에 23평 규모에 해당하는 지금의 대웅전 건물을 지었다.
- ④ 주지: 범명은 광수.
- ⑤ 신도수: 등록 교인 수는 150여명 이고 출석 교인 수는 70~80여명으로 이중 산양리 마을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정도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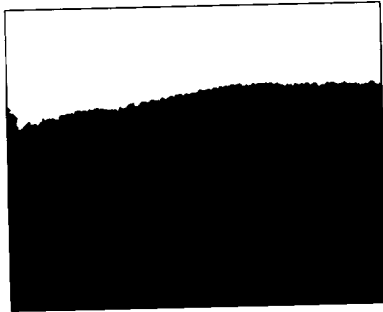
“갑술 창건 75년 됐다. 그게 몇 년도 나면 1934년 그땐 부악사라구 해서. 그 뜻은 가마오름절이란 말이여. 1948년(4.3 사건)에 법당 맨 오른쪽에 모셔두던 작은 불상이 예전 절에 있던걸 모셔와서. 그 불상만 갖고 스님은 판포, 통천사로 소개 갔어. 그 이듬해에 저 불상을 그러니까 원자리로 모시려고 한것이 그 뜻대로 되질 않아 그 낙천리라는 데에서 절을 지어 거기에서 15년 동안 불상을 모셔 포교하다가 지금 이 밭을 사서 절을 옮기려고 해서. 그 이유는 4·3사건이었지. 1962년도에 여기 창고 끄트머리에 요 방만 오두막을 지었어. 절을 지으려고. 1962년도 오두막 때부터 영축사라는 이름을 가졌어…….”

<절 관계자 인터뷰>

2. 민간신앙

1) 포제

제보자 박성희(남·74세 산양리 마을회 총무) 씨에 의하면 산양리 마을제는 산양리 마을 회관 근처에 있는 농협창고 옆 3번째 밭(청수리 3345번지) 가운데서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4·3사건 때 마을에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포제가 중단되었고 그 후 제단이 있던 곳을 갈아엎어 밭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포제는 유교식 제례에 따라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산양리에서 행해지는 마을제는 없다.



<제단이 있었던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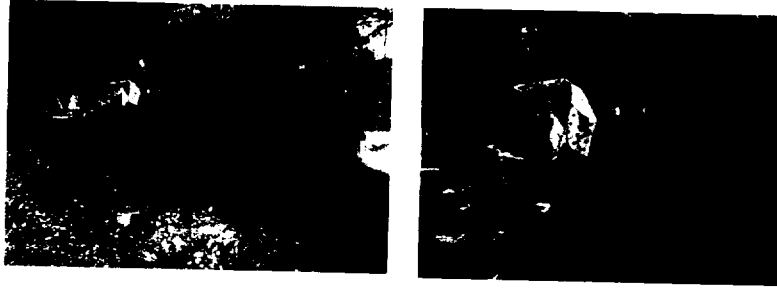
2) 당신앙

산양리에 있는 당은 모두 두 곳이다. 청수리 2779번지(보건소 근처)에 있는 축일당(혹은 도채비당이라고 일컬어 짐)과 저지리 오름허릿당에서 분파되어 나온 할망당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폐당되어 현재 신앙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양리는 본래 1956년 이전까지 청수리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청수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지리 오름허릿당을 본향당으로 함께 모셔왔다고 한다.

(1) 저지리 오름 허릿당

저지리 오름 허릿당(혹은 저지할망당이라고 부름)은 저지리 오름 동북쪽 허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마을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이다. 이 당에서는 ‘허릿당 일뤼중저 호근므루 정씨부인 큰딸애기’를 모시며 이 신은 저지리 사람들의 생산·물고·호적등을 관장하는 본향신이라고 한다. 세습무당이 존재하여 지금도 제일에는 무당을 중심으로 무교식 의례에 따라 제를 지낸다고 한다. 제일(祭日)은 매월 3일과 7일이다.



“저 어릴 때부터 내려오던 무당이 있습니다. 세습무당이죠 뭐. 음식을 올리고 제가 만약 가려고 하면은 생선이나 과일이나 가져가야 합니다. 어……거기가 언젠가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어머니 때부터 이 동네 말로는 속어로 저지할망당이라도 이렇게 지명이 된 거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기 일본이나 나가신 분들 가끔씩 한번 씩 와서 제를 지내기도 하고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표선 구좌 쪽이라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이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 키우는 분들은 여기서 낫도 들이죠.”

<마을 주민 인터뷰>

(2) 도깨비당

청수리 2779번지(산양리 보건소 근처)밭 한가운데 위치한 도깨비당은 갑작스레 일어나는 일의 흉망성쇠가 꼭 도깨비가 저지른 짓과 같다 하여 ‘도깨비(도깨비의 방언)당’이라고 부른다. 이 당의 또 다른 이름으로 ‘축일당’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축일(丑日)에 제를 지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일은 축일, 즉 지지(地支)가 ‘축(丑)’으로 된 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제를 지내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문씨나 송씨 집안사람들 위주로 제를 많이 지냈다고 한다. 폐당이 된지 20여년도 더 되어 현재는 산양리 현지 분들이 아니면, 주변 지역과 당을 분간해 낼 수 없다.

“예전에 좀 나무도 좀 컷고 뿐이 있었는데 녀쿨만 크고 해노니까. 몽크산 낭들도 아주 커나신디 찰라부난 새순만 나고. 옛날에 그 사람 다닐 때는 지전들도 그랑그랑 걸고 촛대도 썩고 술괘도 있고 오색 기지들도 이섯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다니니까 이래봐여.”

<마을 주민 인터뷰>

(3) 할망당

음력으로 초사흘과 초이레(매월 3일과 7일)에 태어난 아기들은 할망당의 할머니를 의존해서 태어나 몸이 허약하다는 설화가 있어 이 날이 되면



(매월 3일과 7일) 이곳 할망당에서 그날 태어난 아기들의 안녕을 위해 제를 지냈다고 한다. 한창 제를 지낼 때는 이곳 할망당의 할머니가 노하실까봐 나무 하나 돌담하나 함부로 건들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 이곳 할망당에 대한 신앙심이 매우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에서는 재작년까지 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 작년에 축고(아주 성대하게 지내는 제로, 앞으로 더 이상 제를 지내지 않아도 마을에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는 의미에서 지내는 제)를 하여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할머니가 노하시맨 건들지를 못해. 금년부터 (마을제를) 안한다 이거지. 시대에 비춰서 과거보다는 현재다 이거지. 그래서 축고하는데 할머니 오늘 이제

힘껏 차려 왔으니까 이거 잔뜩 드시고 다시는 우리 찾아뵙지 않을 테니까 우리에게 해 끼치지 마세요. 할머니와 우리들이 이별합니다 이거지.”

<마을 주민 인터뷰>

■ 조사자 : 현의정(05), 허준영(06), 고승관(08), 오승수(08)